

北 억류 워비어 사망... 북미관계 위험 국면

의식불명 송환 6일만에 ... 트럼프 “잔혹한 정권”

여야, 사망 애도속 반인권적 행태 규탄 한목소리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최근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워비어(22)씨가 19일(현지시간) 결국 숨을 거뒀다.

미 오하이오 주(州) 신시내티에 거주하는 워비어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워비어가 이날 오후 3시 20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즉각 북한에 대해 ‘잔혹한 정권(brutal regime)’이라고 비난했으며, 여야 4당은 일제히 애도를 표하는 한편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미국과 북한 간 오랜 교섭 끝에 지난 13

일 훈수상태로 고향에 돌아온 지 엿새 만에 공식 사망했다. 워비어는 심각한 뇌 손상 증상으로 오랫동안 혼수상태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워비어의 의료진은 아직 코마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그가 지난해 3월 재판받은 이후 식중독 증세인 ‘보툴리누스 중독증’을 보인다고 수면제를 복용한 후 코마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미국 시민이 강제 억류 후 송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사망하면서 미국 내 대북 여론이 더욱 악화하고, 이에 따라 가뜰이나 안 좋은 북미 관계도 더욱 냉각될 것이라 전망이 커지고 있다.

비지니아주립대 3학년이던 워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객 방문한 북한의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같은 해 3월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정보기술(IT) 기업 총수들과의 정부 전산망 개혁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워비어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즉석에서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여야 4당은 일제히 애도를 표하는 한편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워비어씨의 사망이 향후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우려하면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적 영향을 목소리가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0일 현안 브리핑에서 “워비어씨의 혼수상태를 1

년도 넘게 숨긴 것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용서할 수 없는 행동으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은 워비어씨의 유가족과 국제사회에 사죄하고, 사인 규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각각 “채 피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린 청춘의 가슴 아픈 죽음을 애도를 표한다”(한국당), “북한의 야만적인 태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더 강력하게 만들 것”(국민의당), “북한이 협상 가능한 대상인지 의문을 품는다”(바른정당) 등의 서면논평을 내고 북한을 규탄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일이 한미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면서 정부의 ‘외교·안보 실책’을 꼬집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윤장현 광주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방한한 국제수영연맹 FINA 코넬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과 19일 광주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FINA사무총장 2019년 수영대회 점검 광주 방문

윤시장, 北 참가 협조 요청

국제수영연맹(FINA) 코넬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20일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코넬 사무총장과 연맹 직원 등 FINA 방문단은 이날 광주수영대회 조직위 사무실을 방문해 ▲경기장 및 선수촌 건설 현황 ▲엠블럼과 마스코드 시안 ▲통관 계획 ▲수구·다이빙 등 경기 종목별 일정 ▲광주 대회기간 중 FINA 총회 ▲갈라 행사 등 비경기 분야 의 행사일정 등을 조율했다.

조직위는 또 광주 수영대회 총사업비가 1697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새로운 예산서를 FINA에 최종 제출하기에 앞서 분야별 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하고, FINA로부터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전남 광주에 도착한 코넬 사무총장은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영택 사무총장을 만나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코넬 사무총장에게 “광주수영대회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와 흥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가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광주대회 참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미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나선 文대통령

워비어 사망 조전 보내고 美 언론과 인터뷰 ... 한미 우호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워비어씨 사망에 조전을 보내고 미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등 한·미간 상호 신뢰 구축에 힘썼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의 방미 중 발언 파문으로 양국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우선, 문 대통령은 20일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

국 대학생 오토 워비어씨의 사망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조전을 띄웠다.

문 대통령은 조전에서 “워비어씨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썼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워비어씨 사망에 대해 이처럼 ‘신속히’ 반응을 보인 것은 인권을 중요

시해온 대통령 자신의 철학에 기초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법무장관 인선에 있어서도 ‘인권 옹호’가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거론한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의 조전 발송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분위기 조성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드 문제를 비롯해 정치·외교현안으로 난기류를 보이고 있는 한·미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미국 워싱턴 포스트(WP)와 인터뷰를 가진 데 이어 20일 오전에는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한·미 공조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8시 방송에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할 예정이며, 워싱턴포스트는 25일자 신문에 인터뷰 기사를 내보낼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리 국민 6명 북 억류 ... “일부 건강 악화 우려”

정부 “상황 파악 어려움”

북한에 억류됐다가 훈수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워비어가 사망하면서 북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안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일 억류 중인 우리 국민과 미국인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다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13년 10월에 밀입북 혐의로 체포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씨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북한 형벌의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지금까지 억류하고 있다.

김국기(2014년 10월 억류), 최춘길(2014년 12월 억류) 선교사 등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채 억류돼 있다. 북한은 2015년 3월 이들을 기자회견장에 세우고 “미국과 괴뢰 정보기관의 배후 조종과 지령 밑에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 수법으로 최고 수뇌부를 어찌 보려고 날뛰 테러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이다. 또 북한에 잡혀있는 미국인은 김동철

이름	생년월일	억류 일자	억류 사유
김정욱	1954년	2013년 10월	국가정보원 간첩음모 소책자 활동, 수선 중 한국기법학 학위, 반평남으로 체포
김국기	1963년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간첩음모 장한·오카 행위, 반평남으로 체포
최춘길	1955년	2014년 12월	국가정보원 간첩음모 장한·오카 행위, 반평남으로 체포
고현철	1967년	2016년 7월	가짜 실적을 통한 고위급 탈북으로 체포

목사 등 3명으로, 모두 한국계다.

정부는 억류된 우리 국민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중단된 이후로는 아예 남북 간 통신 채널마저 차단되면서 송환 요구조차 못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워비어씨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부는 북한 당국이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과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억류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차단되면서 송환 요구조차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장현 시장 27~29일 中 ‘세계경제포럼 총회’ 참석

윤장현 광주시장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다롄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뉴델리 연례총회’에 참석해 세계 글로벌 리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윤 시장은 이번 포럼에서 세계 기업, 연구, 정책 담당자와 함께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윤 시장은 28일 ‘현실로 다가온 자율주행’ 세션에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휴먼시티’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람 중심의 사람을 위한 e-mobility 실현’, ‘친환경, 미래차 산업육성 국가 정책의 첫 번째 선도시’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한다. 올해는 다보스포럼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밥, 스테판 뢰벤 슈웨덴 총리, 아서 시노다노스 호주 산업기술혁신 장관, 호 아킨 레비 브라질 세계은행그룹 CFO 등 90개국 2000여 명이 220여 개 세션에 참가하며, 중국에서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 신윈리 중국전력망공사 회장 등 글로벌 리더들이 총 출동한다. 국내에서는 윤 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허세홍 GS글로벌 대표,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박흥재 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충훈 순천시장 “자연·생태정책 추진 위해 3선 도전”

조충훈 순천시장이 20일 3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6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연과 생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3선 시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날로 바뀌고 있고 순천시의 정책을 맞추는 노력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의 코드를 맞추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이어 해룡산 단 마그네슘 단지 조성 청원 일자리 창출, 순천 잡월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등재, 랍사르 습지 도시 인증 등 순천 발전 방향을 담은 11대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ㅈ~우~욱~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착순 한정 특가

선박+항공
3일 특큐슈 298,000원 부터
4일 특큐슈·야마구치 398,000원 부터

항공 3일
특큐슈 3일 498,000원 부터
큐슈·야마구치 3일 598,000원 부터

항공 4일·5일
특큐슈 4일 598,000원 부터
큐슈·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 부터

다낭 한국국적 티웨이항공

아름다운 해변의 백사장과 밤하늘의 낭만이 춤추는 베트남 다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친 美親 초!! 특가

5일 399,000원 부터
6일 399,000원 부터

부산 출/도착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대표이사 최금환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제주도 올레 2박3일
289,000원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동다2003-1호

● 교통요: 여행권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여행자보험 1만원, 국내여행 5만원), 관광진흥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 지역 ● 상가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불포함사항: 개인 여권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W30,000/인) ● 예약시 계약서(서비스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호텔,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착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